

朝鮮王朝實錄抄 滿蒙史料

滿蒙史의 研究는 우리 文化와의 연계성과 함께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모두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方面의 研究를 뒷받침하여 출 史料의 발원이 극히 적은 범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있는 것조차 쉽게 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滿蒙史 研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방대한 史料는 물론 『明實錄』과 『朝鮮王朝實錄』을 빼 놓을 수 없다. 이 두 資料는 이 지역은 물론 이 지역과 韓國 및 中國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朝鮮王朝實錄이 갖고 있는 자료는 그 어느 자료보다 귀한 것이다.

그러나 滿蒙史 研究를 위하여 방대한 量의 朝鮮王朝實錄을 섭렵한다는 것은 研究者에게 과중한 努力과 時間의 낭비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덜고 研究者에게 보다 더 좋은 研究業績을 기하기 위하여는 史料集의 정리 출판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비록 朝鮮王朝實錄抄 中國史料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상호 보완하여 주는 바가 있어 本社에서는 이를 中國史料와 함께 影印출판, 研究者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였다.

一九八二年三月

凡 例

一、本書는 景印 太白山史庫本 李朝實錄에서 明代의 만주와 몽고에 관한 記錄을 抄錄 編纂한 것이다.

二、明代의 만주, 몽고에 관한 同實錄의 기사를 광범위하게 거의 빠짐없이 이를 거두었다. 다만, 몽고 및 몽고 민족에 관한 기사는 아주 적으므로 특별히 編은 가리지 아니하였다.

一、明代의 만주와 그 주변에 있어서의 만주 민족의 활동 事蹟 社會習俗 등을 전하는 기사는 이것을 網羅하고, 여기에 李朝와 明朝의 女眞 민족에 대한 정치·군사·경제상의 시책과 시설을 전하는 기사와 아울러 遼東과 조선과의 交涉에 관한 사항을 관련시켰다. 그리하여 이런 사항중 오로지 朝鮮 자체에 관한 것은 특히 머리에 「參」자를 붙여 참고로 하는 뜻을 표시하고, 또 활자의 크기를 작게 하여 만주 본위의 기사와의 구별을 분명히 하였다.

二、索引 一卷을 人名, 地名을 찾아보기에 편리케 하였다.

一、원본에는 異字, 俗字가 매우 많으며 字體 또한 한둘이 아닌데 그것은 오로지 인쇄 제작할 때에 新舊의 鑄字를 섞어서 쓴 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중요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상식적으로 처리하였다.

가, 俗字, 異字의 대부분은 正字로 고치었다. 그러나, 너더 원본대로 따른 것도 있다.

나, 正俗 二體 이상을 아울러 쓴 것은 원칙적으로 正字로 통일 一貫하였다. 澄·澄·澄·潛·潛으로 통일한 따

위다. 그러나 원본의 舊를 보존한 것도 있다.

다, 俗字·異字로써 一貫한 것을 원칙적으로 이것을 답습하였다. 贊歎 마위. 그러나, 제의도 있다.

一, 원본에서 틀림없이 誤字·脫字·衍字·倒錯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대로 답습해 쓰고 그에 그 교정 정오를 배하였다. 다만, 그것을 의문체로 다룬 것은 편자의 신중과 경양에서, 독단으로 여겨지기를 피하고 싶어서이다. 그리고, 부주의로 인한 誤植인지, 의식적으로 한 慣用(音通을 포함)인지 당장 결정하기 곤란한 것에는 열대()을 붙였다.

一, 記事에 관계되는 干支(日次)를 掲出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세가지 구별을 두어 원본의 체재를 바르게 전하도록 하였다.

가, ○干支(本文)

이것은 원본 그대로이다. 즉, 원본에서 記事 머리에 干支를 掲出한 경우이다.

나, 干支○(本文)

이것은 원본에서 기사 머리에 간지를 掲出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관계 간지가 분명할 경우이다. 즉, 先行의 는 기사의 머리에 掲出한 干支와 後續되는 기사의 干支 사이에 日次の 간극이 없을 때에는, 이 干支들 사이에 실린 기사는 모두 先行의 干支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여 무방하다.

다, 干支^先行——干支^後續○(本文)

이것은 원본에서 「나」와 마찬가지로 기사 머리에 干支를 掲出하지 않고, 또 관계되어야 할 干支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경우이다. 즉, 先行干支와 後續干支 사이에 日次の 간극이 있을 때는 이 干支들 사이에 수록된

기사에 관계되는 干支는 일단 의문시함을 慎重을 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특히 「나」와 구별하여 원본의 제재를 보존하였다.

라, 그리고, 같은 干支에 관계되는 둘 이상의 기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干支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다만, 「가」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다음기사에 만 같은 干支를 掲出하여 干支(本文)으로 하였다.

一九八二年三月

景仁文化社

目次

成宗實錄

成宗二十四年(弘治六年).....	一
成宗二十五年(弘治七年).....	九
燕山君日記.....	二七
燕山君元年(弘治八年).....	二九
燕山君二年(弘治九年).....	三三
燕山君三年(弘治十年).....	三七
燕山君四年(弘治十一年).....	三七
燕山君五年(弘治十二年).....	二六六

目次

一

燕山君六年(弘治十三年).....	三七一
燕山君七年(弘治十四年).....	四〇八
燕山君八年(弘治十五年).....	四二四
燕山君九年(弘治十六年).....	四五三
燕山君十年(弘治十七年).....	四七五
燕山君十一年(弘治十八年).....	四七九
燕山君十二年(正德元年).....	四八三
中宗實錄.....	四八五
中宗元年(正德元年).....	四八七
中宗二年(正德二年).....	四九〇

成宗實錄 卷二百七十三

二十四年正月

朔丁卯○御仁政殿行會禮宴倭人阿可馬多羅沙也文等十三人野人浪都浪介等六十二人入參傳于倭野人曰今日乃正朝予饗羣臣爾輩亦可醉飽皆對曰上恩至大敢不醉飽賜物有差

○兀良哈僉知羅松介等十四人來獻土宜

甲戌○訓練院正李晟等上疏曰國朝設成均館訓練院以待文武之士將相皆由此出在祖宗朝常選用士類今者兵曹因童清禮上言許差習讀官清禮雖占科名然其父童所老加茂始革面來欵其獷狎之習至其子未盡革臣等差與爲伍習讀官仕滿則例授東班職或授監察或授郎官或出爲臨民之官清禮雖仕滿決不可任此

職也伏願殿下甄別士類勿使混處傳曰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沈澮李克培尹弼商盧思慎李鐵堅鄭文炯議清禮向化雖久衆議如此況於習讀官不關有無乎依李晟等所啓何如尹壕許琮議清禮既登武科則爲訓練習讀固其宜也況其父所老加茂國家待之異於他野人乎傳曰清禮改除他職

○乙亥上御宣政殿引見野人李麻具等十七人教曰爾等於北征時有勤王之勞故特饋之仍賜物有差

丁丑○兀良哈上護軍伊充應巨骨看中樞李把刺速等十四人來朝

○戊寅受常參視事左承旨金應箕將刑曹三覆啓本啓定州囚禮賓寺奴加都致宣川官奴順同金伊仇知從唐人李上佐之誘背本國向遼東罪律該斬不待時右議政許琮啓曰平安道觀察使柳輕

云順同乃其官房子至迷劣者也是必因加都致誘引而然也工曹參判金升卿啓曰雖然罪重不可棄也上曰雖云迷劣年既十八不可不罪依法施行可也(略下)

辛巳○諭西北面都元帥李克均曰三衛如更請歸順則荅以酋長親來許和趙荅郎哈更請被奪物色則亦依前說之彼雖曰歸順譎計難測前此每於正二月間作耗防禦諸事卿其更加措置毋或少弛又下書李克均曰溫下衛酋長中樞金劉里哈護軍金主成可朴古里等屢報事變其功可賞故各送衣一襲青綿布一匹紅綿布二匹笠靴帶囊若一時全給恐遂成例終難處索當俟三人出來量宜節給但金劉里哈則酋長獨給無嫌如金主成可朴古里等與前日同來三衛酋長子弟偕來則只給例物不可獨給此等物件使生嫌隙卿悉此意詳諭金允濟善處之

癸未○下書西北面都元帥李克均曰今方救荒義州邑城來秋退築

○丙戌上御宣政殿引見野人中樞羅松介等二十一人教曰汝等從征有功故特饋之仍賜物有差

〔參〕○庚寅賜御札于西北面都元帥李克均曰卿久在邊場不遺備敵之策心懸北闕豈無覲君之情夢寒戍樓莫效充國之智威行漠地特比衛青之雄茲以賊畏受首歛迹覘隙防禦之事不可少弛然冬雪已消春水方解思欲見議問邊事卿其申令邊將乘閑上來

○壬辰兀良哈都萬戶阿哈等八人來朝

成宗實錄 卷二百七十四

二十四年二月

己亥○三衛野人致書云大王建州衛左衛右衛甫阿吐都督羅下都督吐老都督三衛三都督阿車下達罕都督大皇帝向望其後朱哈人作賊三都督不知建州衛胡羅衛都督子作賊送右衛左衛甫何衛羅下吐老三都督叔伯叔弟巨奴吐王童若沙於馬赤送王時里汝巨車甫何吐童子達罕子其應巨奴郎時羅何於馬赤送三都督送吾馬下地在羅何都督父雍車都督皇帝皇帝時時溫恭勤金皇帝知道皇帝皇帝時知道雍朱衆巨陳他里非巨羅雲吐盤知巨所羅哈等三衛人送前羅下都督滿浦地若沙等名人在送七人死外大都今滿浦地在大都金皇帝知道羅下都督子羅溫車書寫

命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尹弼商議今此書契之辭雖未細知大槩不過欲歸順送人報知而已李克培盧思慎議下該司議啓後更議何如許琮議書契之意難曉大意不過示其歸順之意而已依前諭待酋長親來聽其歸順事開諭何如鄭文炯議今書契不得曉解然不過納款之意令邊將語之曰汝等若誠心歸順國家必不絕之許由永安路上來如是語之以觀情勢何如柳輕議今觀書契文意難曉大槩歸順之意也亦有遣子弟和好之義臣謂來者不拒重加褒獎聽依求請若請上京則許從永安路何如上從許琮議遂下書西北面都元帥李克均曰今觀三衛書契與前書契之意同若欲歸順酋長親來事依前諭荅說

〔參〕戊申○兵曹據永安道都巡察使呂自新啓本啓雙青口子專爲鉛金洞

沙里洞加先洞三處賊路設堡今不可革罷北青金昌岐實賊路要害而

拒雙青六十餘里賊若由此入寇聖代社則雙青豈能及救請依自新所

啓於金昌歧古驛基別設堡防禦爲便令觀察使節度使其權管及戍卒

等事議啓命議于領敦寧以上議政府及知邊事宰相李克培尹壕李鐵

堅議呂自新親審便否當依所啓略中下書永安道觀察使成俊曰今欲設

堡於金昌歧但地多可耕慮北道之民厭苦防戍潛逃而來反致邊事疎

虞其防禁節目及戍卒分定事與南道節度使議啓

已酉己九○西北面都元帥李克均上箋謝曰略中又啓曰前者下諭云溫

下衛酋長金劉里哈金主成可朴古里等屢報事變其功可賞特賜

物待三人來擯節量給臣意我大國賜給不宜擯節以示不裕待三

人出來稱以宣賜一時專給仍語之曰爾等向國無貳勤勤報變且

皆年老不得遠來北門又與兀狄哈素有構嫌未得來朝國家嘉乃

誠心特送物件聖恩至重不可不知以此開諭且金劉里哈雖曰酋

長皆不能御下與金主成可朴古里等一例許給下書于克均曰溫下衛野人金劉里哈金主成可朴古里賜給事議諸大臣下諭矣而卿乃擅斷已違於理且稱謝御書而寄於政院開拆是可乎卿其知悉又下書曰今觀卿啓金劉里哈金主成可朴古里賜給事反其下諭之意而擅斷之如已給之則已矣邊將若未給之姑令留置急速取稟施行

丙辰○火刺溫兀狄哈司猛有川等六人來朝

○丁巳上御宣政殿引見野人伊應巨等十人教曰爾等於北征時有勞效特饋之仍賜物有差

成宗實錄 卷二百七十五

二十四年三月

已卯(合九)○御宣政殿引見平安道都元帥李克均克均啓曰聞兀狄哈常以爲朝鮮雖強豈能踰蔚地峴乎今北征深入示威又於高山里斬獲甚多虜人相謂曰兀狄哈受制如彼我輩豈敢當哉乃殺牛祭天誓告曰更不與朝鮮構釁永爲臣服自是不敢遊獵於江邊矣上曰江水何如克均曰近日多雨漲溢然或有灘可涉處故沿江賊路或鑿陷窳或設木柵或置機木於江中使賊不得闌入前者宋殷家口被擄者以邊將處置失宜不盡入保城內故也上曰夏月農民布野時亦或有賊變克均曰臣亦慮此於江邊芟草斫木使賊不得遁形又使軍卒守護農民以備其變且義州城不可不改築然比諸碧

團城子爲有緩急臣意以爲當先築碧團次及義州上曰遙制爲難卿已親見來秋與韓致亨同審便否先城碧團可也克均又啓曰平安道軍士冬則合防夏則助防赴京之行有半護送別護送無休息之期勞苦莫甚臣謂中原設豸陽之後八站之路頓無賊變護送軍一依大典數抄定可也上曰可略下

辛巳○御經筵講訖略中侍讀官俞好仁啓曰今命永安道點馬市御乘馬于幹朶里幹力我國諸道牧場多良馬而濟州尤最良馬不爲乏也彼雖來獻猶多却之況市之乎古人有問國君之富數馬以對今求馬徒示弱耳上曰漢文帝却千里馬予何獨市駿於彼人乎爾言誠是

丙戌○平安道節度使曹克治馳啓曰溫下衛護軍金主成可朴古里及酋長金劉里哈子指揮無澄巨等到滿浦謁僉節制使金允濟

允濟以草綠紬襦帖裏各一給之仍語之曰爾等向國無貳勤於報邊且皆年老不得遠來北門故國家嘉乃誠心持送賜物聖意至重爾不可不知也爾若如一納欵則賞賜不止於此也主誠可等北面叩頭而謝且曰前者趙達郎哈啓請還物色若不得舊物以他物給償何如允濟荅曰其初鬪死時散失草野若有之堂堂大國豈吝些小物件乎彼若誠心納欵則國家恩賜豈止此亡失之物哉且我邊民被擄者多而不一刷還反求償遺失之物其敬畏大國之意安在但前有功勞今若來欵我當以物賞之以此歸報主成可等喜曰後當與達郎哈偕來願有所贈使之釋怨且高山里戰亡人之族古羅哈言曰三衛人雖歸順不許朝京又無恩賜不如草竊得利之爲愈也允濟曰彼之反覆固不足信禍福之機會已開諭今何多言爾自思之悔無及矣允濟又問劉里哈何不親來而遣其子荅曰劉里哈